**일병목회강좌 히브리서 1강**

2019. 4. 2

**1. 히브리서의 IDEA**

**1) 정황**

- 히브리서의 어려움은 자주 등장하는 ‘대제사장’이라는 단어 때문에 구약 배경에|특히 제사법| 정통해야 잘 읽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인한다.

- 히브리서는 초대 교회 때, 핍박 속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에|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된 히브리 기독교 공동체| 보낸 격려의 편지이다.

• 로마황제숭배 거부에 따른 핍박과, 성자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유대교의 반발이 민족을 배신했다는 오해로 이어져 핍박을 받아야 했다.

- ‘고난을 잘 이겨라’는 메시지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으로 풀어나간 것이다.

**2) 전이하는 메타포**

**① 출애굽의 기이함과 질문들(히3:1-19; 6:4-8)**

- 출애굽 사건의 기이함은 열 가지 재앙, 홍해를 가르심, 광야 길에서의 인도하심 모두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홀로 결정하시고 행하셨다.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정하게 하셨다.

•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의 결과로, |고난으로 대표되는| 40년의 광야생활을 해야만 했다.

• 믿은 다음에 어느 과정이 있고, 믿은 다음에 형통이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.

• 지금의 고난은 정상적인 과정이며, 필수적인 과정이다. 잘못한 것이 아니다.

-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과 이런 요구를 하시는가?

- 출애굽 했으나 광야에 엎드러진 자들의 출애굽이 취소되는가?

**② 십자가, 대전환 (히5:11-6:2)**

-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. 예수를 믿으면 새 인생을 가지는 것이다.

• 새로운 존재가 되고,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현실을 살게 된다.

• 이 현실은 우리는 ‘새 사람’이 되었지만, ‘새 세상’이 되지 않은 세상을 살아야 하는 현실이다.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.

- 옳고 그른 것이나 죄와 죄가 아닌 것으로밖에 구별을 못해서, 어려우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|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처럼| 자꾸 ‘십자가로 돌아가자’고 한다.

- 완전한 데로 나아가는 것,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보고 하라고 하신다. 이것이 히브리서의 중심 된 본문이다.

**③ 광야와 현실, 자유를 만드는 무대**

-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다. 그런데 그 가운데 광야가 있다.

• 광야가 필요한 것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실력을 만드는 과정이었다.

• 가나안에 들어갈 실력이라는 것은 책임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. 즉 자유를 가지는 것이다.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은 자유이다.

- 자유란 인문학적 인류역사에서는 시민정신이다.

• 모든 백성이 왕족과 귀족과 다를 것 없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이야기하자,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.

• 서구 역사의 최고의 공로는 시민정신을 만들어낸 것이다.

• 시민정신은 자유를 주장하지만, 그 자유가 책임을 수반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.

-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의 종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여,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책임 있게 섬기는 자리에 오기를 원하신다.

• 이를 위해 출애굽 사건에는 광야가 있었고, 우리에게는 현실이 있는 것이다.

**④ 가나안에 닿는 광야길**

- 우리는 고통을 기준으로 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고,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과 성품과 본질에 어떤 완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신다.

• 하나님이 끌고 가는 이 길로 걸으라. 울면서 걸으라.

-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굉장한 것이다. 부딪혀 볼 수도 없는 것으로 훈련하지 않고 노력하면 넘어올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.

• 인생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의지이다.

- 후손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,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.

• 우상은 쉬운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다. 우리라는 존재의 가치와 목적을 타협하는 것이 우상이다. 하나님이 못 참는 이유이다.

-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완성하기 위해 |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꺼낸 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 완성된 자리를 가기 위하여| 지금이라는 시간을 두고 있고 일을 하고 계신다.

**⑤ 영광에 닿는 인생길 (롬5:1-8)**

- 하나님과의 화목과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되고, 현실적으로 환난이 들어오는 순서이다.

• 롬3:23에서 영광은 이르러야 할 목적지라고 말한다.

• 인내는 경험을 만들고, 경험은 단련된 신앙인격을 만든다.

•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을 때, 필요를 알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은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확언하는 것이다.

- 죽으심으로 하신 사역과 살아나서 하는 사역이라는 예수의 두 사역을 우리에게도 평행법적으로 적용해서, 죄인이었을 때도 편을 들었다면 의인이 된 마당에는 얼마나 더 편을 들겠느냐고 말하는 것이다.

• 지금이|예수의 죽음이 시작이 된, 예수를 고백한 신앙현실| 예수님이 편을 들어야 하는 시간임을 의미한다.

-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생각하라(히2:14-3:1).

•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, 지금도 여전히 하늘보좌 우편에서 |우리를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| 제사장 노릇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.

- 그러니 핑계대지 마라 (히4:11-16).

• 아무 실수도 흠도 없이 이 길을 잘 걸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. 오히려 자빠지는 것이 일하는 것이다.

• 인생이 이런 것은 하나님이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이다.

-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바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33년간의 고생스러운 인생을 산 것이다(히5:7-10).

• 구원이 성육신, 육신에 채워진 것이다. 우리도 육신에 채워져야 한다. 머리 이상 관념으로 추상화되는 것이 아니다. 몸이 따라가야 한다.

- 영원한 대제사장은 실패할 수 없는, 그래서 그만둘 일 없다는 뜻이다(히6:17-20).

• 예수님은 백성을 위해, 우리를 위해 서 있는 대제사장이시다.

-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신앙현실 속에서, 하나님의 기이한 작정으로 고생 고생해서 훌륭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되는 자리에 가는 것이라고 말한다.

• 그 현실은 죽을 맛이다. 그러나 실패할 수 없다.

**3) 완전하고, 검증가능하며, 불가역적인**

**① 그의 죽으심이 만든 것(고전11:23-26)**

- 성찬예식은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기억하는 것이다.

• 그는 이미 죽었고, 그래서 지금이 있는 것이다. 그는 다시 오실 것이며,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것이다.

- 구원은 2천년전에 이뤄졌는데,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각각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.

• 운명은 완료형으로 정해놓고 구원과 성화가|가나안에 들어가는 시민정신을 가지는 자발적 책임지는 사람으로의 완성이 되는 것| 그 후에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데, 이것은 완료된 사건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는 것이다.

- 우리의 자발성이나 우리의 책임이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.

• 그 시작은 십자가이다.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이다.

• 다시 돌아가자고 하지 말고, 회개로 돌아가지 말고, 오늘을 살아라.

**② 안식일 창조(히4:1-7)**

-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창조가 완성되었기 때문이다.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저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이야기한다.

•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. 출애굽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출애굽이 갖는 완성에까지 못가고 중도에 실패한 꼴이 되는 것이다.

• 하나님이 창조 때에 안식을 지켰다는 것은 이 모든 구원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가지신 작정이 승리하고야 말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다. 그러기 위해서 오늘이다.

-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로운 창조로 개인과 역사에 개입하실 수 있다(로완 윌리암스).

- 세상은 좋은 말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에|부정직, 불평등, 무정 등과 같이| 부정문을 붙여서 개념을 만든다.

• 예수님은 ‘내가 곧 길이요, 진리요, 생명이니’라고 말씀하셨다. 예수님은 관념으로 추상명사로 설명하지 않고, 당신이|인격과 육체를 가진 이| 부정적이고 가치 없이 된 것과 실패와 절망과 비극을 뒤집어서 영광에 담을 수 있다고 하신다.

- 용서와 은혜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다.

• 은혜를 도입하면 갑자기 잘잘못이 없어지고 책임이 없어져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못난 생각이다. 죄가 끌어내는 반론이다.

- 출애굽은 신분의 구원이며,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수준의 구원이다.

• 신분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. 그러나 수준의 구원은 각각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성취가 달라질 것이다.

-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, 어느 한 순간이라도 쉬지 않는 하나님이며 결코 하나님이기를 중단한 적이 없으시다.

• 모세는 므리바 사건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하나님의 의도를 ‘지도자로 평생을 살아 왔으니 같이 죽는 명예를 누리라’는 뜻으로 알아 듣는다.

- 현실을, 오늘을 책임 있게 살라, 지금 하라. 내가 하면 그렇게 된다.

**4) 구원, 자유와 책임**

**① 선택하라(갈5:1, 16-17)**

- 선택을 하려면 자유가 필요하다.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.

• 매 번 선택의 갈림길에 서있다.

- 성령의 열매는 능력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, 존재에 관한 것이다.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다.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권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품으로 이뤄졌다.

- 우리가 온 길은 옳은 정도가 아니라, 더 적극적으로 영광의 길인 것이다.

• 시민정신이 권리보다 책임을 앞세우듯이,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훨씬 더 고급한 자리로 인도를 받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야 한다.

- 영광과 고난이 묶여 다닌다(롬8:16-17).

-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구원 사역을 육체에 담아 실체화 하셨다.

• 육체를 과소평가해서 이념과 상상으로는 완벽하고 육체가 못 따라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, 육체가 하는 만큼 실력이다.

**② 행하라(롬6:1-4)**

- 살아나서 살아야 하는 새사람의 인생이 있다.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, 새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한다.

• 영원한 가치, 영원한 영광과 부끄럽고, 헛되고, 비겁한 것을 대조하여 우리에게 선택하라 한다.

• 죄는 더럽고 치사하고 부끄럽고 못난 것이다. 도덕적인 차원보다 훨씬 크다. 존재론적인 가치에서 그렇다.

- 생각도, 갈등도, 고민도, 실패도, 상처도 없는 수월한 길이 아니라,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듯이|십자가에 못을 박히듯이| 최악의 자리에 갔다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것의 유일한 방법이다.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.

• 하나님께 최선이다.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,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권능이다.

-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대한 모든 시편의 기록들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완성되었듯이 우리 인생에도 완성된다.

• 못난 인생을 구원하여 잘난 인생과 가치와 의미를 나타내는 실존이 되라는 것이다. 명예에 관한 것이다.

- 예수는 우리를 그의 종으로 삼지 않고 자녀로 부르셨다. 자녀는 부모와 동등한 신분이다.

• 상속권이 있고, 자유가 있다.

• 그 자유를 누리고 영광된 삶을 살라는 것이다. 이것이 히브리서이다.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다.